



제29회 정읍사문화제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정읍천변과 정읍사공원 일원에서 다채로운 행사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했다.

## ‘평생 잊지 못할 가을의 추억’

### 정읍사문화제 성황리 마무리

제29회 정읍사문화제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정읍천변과 정읍사공원 일원에서 다채로운 행사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했다고 22일 밝혔다.

천 년의 기다림, 가을의 사랑으로 물들다 라는 주제로 한 여인의 지고지순한 사랑 이야기를 담은 정읍사문화제는 (사)정읍사문화제 제정위원회와 정읍시가 협조체계를 구축해 시민과 정읍을 찾는 관광객에게 평생 잊지 못할 가을 추억을 남겨줬다는 평이다.

19일 9시 채수의례를 시작으로 막이 오른 정읍사문화제는 전국 공모로 진행된 40개 팀의 화려한 퍼포먼스의 거리퍼레이드로 이어졌다. 오후 6시에 정읍사 공원 특설무대에서는 개막식을 갖고 부도상(차영임씨, 정읍시 농소동) 시상식과 함께 경관조명 점등

식, 축하공연 등이 펼쳐졌다. 행사 기간 중에는 경관조명, 레이저와 서치라이트를 가미한 3차원 조명기법을 도입한 불꽃쇼와 화려한 축하공연 등에 더해 LED소망풍선 날리기, 일루미네이션 포토존, 소원 등 달기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가미해 관광객들을 사로잡았다. 정읍천변 일원과 주 무대인 정읍사공원에 설치된 경관 조명은 단풍나무와 구절초를 비롯한 정읍사여인의 스토리를 더하여 많은 이들의 발길을 잡았다.

제29회 정읍사문화제 성공 개최를 기원하기 위한 KBS전국노래자랑 정읍시편 공개녹화가 전북과학대학교 운동장 특설무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 자리에서 덕천면에 거주하는 국악산동 관소리 유년부 전국대회 우승 경력의 김태연 양(7세)이 ‘배 띄어라’는 노래로 최우수상을 시상했다.

뿐만 아니라 주요 프로그램인 정읍사가요제와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제2회 메이플

스타 오디션 페스티벌도 눈에 띈다. 지자체 최초로 시도되었던 메이플스타 오디션 페스티벌은 전국의 청소년들(만9세~24세)을 대상으로 노래와 춤 등 숨겨진 재능을 발견하고 미래성장 가능성의 지평을 열어주고자 마련된 행사이다. 전국광역도시를 순회하며 가졌던 1차 예심을 통과한 300팀을 대상으로 지난 13일과 14일까지 이틀간 정읍시청 소년수련관에서 치른 2차 예심을 통과한 21팀 중 10팀이 참가하여 축제 마지막을 장식하였다.

유진섭 시장은 “행상 나간 남편의 무사귀환을 기원하는 여인의 슬고한 사랑을 담고 있는 백제가요 ‘정읍사(井邑詞)’를 주제로 펼쳐지는 제29회 정읍사 문화제가 천년의 부부사랑을 보전 계승함은 물론 아름답고 화목한 가정, 나아가 시민 모두가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정읍 만들기의 큰 힘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 공지영 “개인을 이렇게 말살해도 되나? 거의 조직적 움직임”

작가 공지영(55)이 악플로 인한 고통을 호소했다. 21일 페이스북에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한 개인으로 한계가 있다. 아침부터 ‘자살하라’, ‘질필하라’ 메시지가 쏟아진다”고 적었다. “한 개인을 이렇게 말살해도 되는 건가? 이런 거의 조직적 움직임”이라고 썼다. 악의적인 글을 남긴 네티즌의 글도 캡처해 올

렸다. 20일 공씨는 배우 김부선(57)과의 전화 통화 녹음파일을 유출한 최초 인터넷 게시자를 고소한다고 밝혔다. 파일에는 김 씨가 이재명(54) 경기도지사의 특정 신체부위에 ‘점’이 있다고 언급한 내용이 담겨있다. 논란이 되자 이 지사는 아주대병원에서 신체 검증을 받기도 했다.

/뉴스1



## 전주대 산업디자인학과, 오늘부터 ‘全州發露’ 졸업작품전 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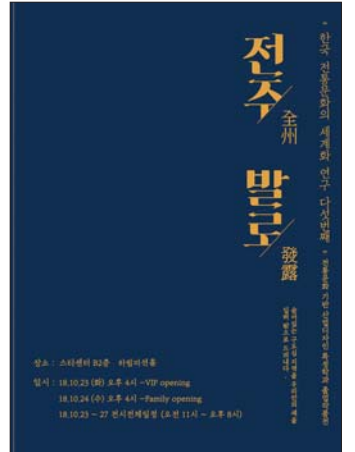
전주구도심 활용 다양한 재생 디자인 선보여

전주대 산업디자인학과는 오늘부터 ‘전주 발로(全州發露)’라는 주제로 2018년 산업디자인학과 졸업작품전을 연다. 이번 졸업작품전의 주제, ‘전주 발로’는 ‘전주의 숨은 것을 드러낸다’라는 의미로 학생들은 전주에 숨어있는 구도심 지역을 우리의 전통문화와 어울리는 색을 입혀 새롭게 재탄생 시켰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는 한옥마을, 남부시장, 덕진공원 등 전주지역 생활문화 공간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우리지역 문화에 맞춘 재생디자인을 선보인다. 또한 자동 햇빛 가리개와 엘리노 대피소, 소방방재, 4차 산업혁명 관광 로봇 등 생활에 편의를 더하는 다양한 시설·설비 디자인도 관람할 수 있다.

산업디자인학과 신익수 학과장은 “학생들의 대학생활 노력과 열정이 담긴 작품전을 마련했다”라며, “대학생활의 끝이자 디자이너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졸업작품전에서 학생들에게 응원과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전주대 산업디자인학과 작품전은 오늘부터 27일까지 4일간 스타센터 지하 2층 하림미션홀에서 진행되며,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 가능하다.



한편, 전주대 산업디자인 학과는 교육부 선정, 전문문화기반 산업디자인 특성화 학과(CK)로 2014년에 한식문화 활성화를 위한 주변 환경디자인 연구를 시작으로 2016년에 전통문화기반의 색상활용 디자인, 2017년에는 전라북도 대표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디자인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장은성 기자

## 가을밤의 감성 충만한 시간 ‘작은음악회’와 함께 하세요

### 부안군 문화가 있는 날 ‘시네마 콘서트’

### ‘이야기가 흐르는 가곡여행’ 공연 다채

부안군(군수 권익현)이 2018년 문화가 있는 날·작은 음악회 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작은음악회가 오는 30일 오후 1시 30분 ‘시네마 콘서트’, 오후 7시 30분에 ‘이야기가 흐르는 가곡여행’ 공연이 부안예술회관에서 무료공연으로 개최된다.

이번달 문화가 있는 날 공연은 두 개 공연으로 먼저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에 제이엘아트(대표 조무선)의 명작 고전영화음악 OST연주로 이루어진 ‘시네마 콘서트’ 공연이 펼쳐진다. 제이엘아트는 창의적인 사고와 문화적인 감수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특화된 문화를 기획하는 문화공연예술기획사이다. 영화 음악곡으로는 시네마전국, 라라랜드, 오즈의 마법사, 코코, 하울의 움직이는 성, 인어공주, 겨울왕국에 나오는 OST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오후 7시 30분에는 서울모테트합창단(지휘 박치용)의 문화가 있는 날, 예술여행 더하기 ‘이야기가 흐르는 가곡여행’ 공연이 준비되어

있다. 서울모테트합창단은 이날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서곡과 유명한 우리 가곡, 세계 각국의 대표적인 가곡, 민요를 친근하게 들려 줄 예정이다.

합창단의 아름다운 하모니에 박치용 지휘자가 해설을 덧붙여 깊어가는 가을밤 무대를 수놓을 것으로 보인다. 박치용 지휘자는 섬세하고 치밀한 완벽주의자, 생명의 소리를 전하는 구도자라는 평을 받아오고 있다.

서울모테트합창단은 1989년 창단해 활발한 연주활동을 하고 있는 전문 연주단체로 깊이 있는 음악과 대한민국 예술상(대통령상) 등 다양한 수상경력을 자랑하는 국내 최고의 합창단이다. 이번 공연이 여섯번째 작은 음악회로 군민의 눈높이와 군민과 밀착하여 진행되는 공연 프로그램이라는 호평을 받고 있다.

문화가 있는 날 ‘시네마 콘서트’ 공연은 30일 화요일 오후 1시 30분, ‘이야기가 흐르는 가곡여행’ 공연은 30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에 선착순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고 자세한 사항은 부안예술회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부안=이옥수 기자

# 무주 반디봉 농·특산물 서울로 갑니다!

해발 400~800m 연평균 11.3°C  
안전한 먹거리! 반디봉이 배당합니다!

## 농·특산물 홍보 & 판매행사

기간 : 2018. 11. 2(금) ~ 11. 7(수)

장소 : 농협 하나로마트 서울 양재점  
(창동,고양,성남)